

# 이슬람의 상황에서 자신학화 기독교론의 가능성

권성찬 선교사 (GMF, kwon@oka.or.kr)

## 들어가면서

이 글에서는 이슬람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 상황화된 기독교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 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되 많은 부분 인도네시아의 유수프 로니 목사와 파키스탄의 알렉산더 말릭 주교 그리고 앤드류 월스 및 라민 사네의 강의를 참고하였다.

## 1. 이슬람 상황에서 자신학화가 필요한 이유

자신학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이슬람 상황을 포함하여 새로운 문화에서 자신학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학화 없이 진정한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립의 원리로 대표되는 삼자 (자치, 자급, 자전)는 이미 자신들의 신학을 하나의 신학 (A Theology)으로 자각하기 어렵고,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유일한 신학 (The Theology)으로 여기던 서구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진정한 자립의 예를 선교지 상황에서 보기 어려웠던 시기에 가졌을 자립에 대한 희망적 표현이었다는 말이다. 표면적으로 그러한 삼자가 이루어진 사례를 볼 수 있는 오늘날에는 삼자 원리가 말하는 자치, 자급, 자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교회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삼자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신학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 여전히 식민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말씀을 스스로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 적실한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자신학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두번째는 특별히 이슬람 상황에서 좀 더 포용적인 관점을 가진 자신학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신학화 기독교론이 필요하다. 여러 현장의 사역자들이 지적하듯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제가 신학적 해결보다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하나가 실제 무슬림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오해의 원인이 되는 기독교를 이슬람 상황에서 자신학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유수프 로니 목사<sup>1</sup>는 이슬람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 사역자로서 기본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보다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복음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끔씩 이루어지는 두 종교 간의 화해가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저 같은 민족 혹은 같은 문화, 언어 등에 기반한 화해 정도로 표면적인 화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두 종교를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 원인은 오랫동안 배타적이며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신념 안에서 각자의 신앙을 교리화해 온 결과가 아닌지 성찰해야 봐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미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방식이 주류였다는 것이다. 그 역시 이러한 논의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중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수프 로니에 따르면<sup>2</sup>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일반 대중들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한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불신자 (kafir)로 여긴다. 그들은 세 하나님을 섬기며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이교도로 불릴 만한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예수를 코란에 언급되는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돌을 숭배한다고 말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이며 이슬람은 정체성 자체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라고 하면서 지하드 (성전)를 자주 언급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의 부족은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심화된다. 여러 종교학자들이 타종교를 비난하도록 가르치는 일도 있고 때로 교회가 구호품을 주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그의 바램은 서로 상대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의

---

<sup>1</sup>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의 팔렘방에서 경건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무슬림 기숙사 학교 (Pesantren)에 다녔다. 1971-1972년에 그는 기독교 신앙의 약점을 찾고자 서부 자바의 반둥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20대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73년 세례를 받고 자신의 간증을 서부 자바의 반둥, 동부 자바의 수라바야, 그리고 칼리만탄과 자카르타에서 나누게 되었다. 이슬람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1974년 6월 15일에 동부 자바의 말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5년간 감옥에 있다가 6년형을 받고 1980년에 석방되었다. 조건은 설교하거나 출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1998년 이후로 표현의 자유를 많이 얻어 활동하게 되었다. 2001년에 GPI (Gereja Protestan Indonesia)라는 유대 기독교적 독립 교단을 세웠다. 현재는 GKA (Gereja Kemah Abraham) 교회의 원로로 교회는 아들인 이반 하크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다.

<sup>2</sup> Crouch, Melissa, 2014. Law and Religion in Indonesia: Conflict and the courts in West Java. Abingdon: Routledge.

넓은 장막인 아브라함 장막 안에서 형제로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의 교회 혹은 교단의 이름도 아브라함 장막 교회이다 (Gereja Kemah Abraham)

## 2. 자신학화 기독교론의 정당성

자신학화 기독교론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상황화 기독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자. 상황화 기독교론이 가능한가? 기독교론을 상황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증언한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확장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신학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론을 상황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전자,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논하는 것은 상황화의 초점이 아니다. 상황화 기독교론의 전제는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신학화 작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을 유일한 신학 (The Theology)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가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 낸 유익하면서도 다른 관점에 대해 열고 있는 신학 (A Theology)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유일한 신학이라면 상황화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물론 이런 전제를 가진 사람들도 상황화라는 논의를 하지만 그 때의 상황화란 고정된 신학 혹은 관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 수용 문화를 이해하려는 제한적 상황화, 즉 소통의 상황화이지 신학적 상황화는 아니다. 상황화 기독교론의 논의는 후자의 관점, 즉 이전의 신학을 중요한 하나의 신학으로 보는 관점을 지향한다. 유수프 로니를 비롯하여 이슬람 상황에서 포용적인 신학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황화 기독교론은 후자의 전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상황화 보다는 자신학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앤드류 월스는 21 세기를 시작할 때 이러한 희망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성경적인 전통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고전적인 문화들과 교류를 하게 됨에 따라 신학적인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 전통이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교류를 하였던 3 세기와 4 세기 이후 가장 왕성하게 창의적인 신학이 발전하는 세기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We are also likely to see new developments in theology as the Biblical tradition interacts with the ancient cultures of Asia and Africa. It may well be the most creative period for theology since

the third and fourth centuries when the Biblical tradition interacted with Greek and Roman culture.)<sup>1</sup>

유대적 옷을 입은 복음이 헬라 문화를 만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의 꽃을 피웠다면 오늘날 변화한 세상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유대적 옷을 입은 복음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화와 만나 보여줄 신학을 기대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론을 자신학화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민 사네가 번역에 관해 발제한 글에서 몇 가지 정당성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그는 기독교의 특징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먼저 기독교는 창시자의 언어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기독교는 창시자의 태어난 장소를 별로 기억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창시자의 언어로 예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예배한다 점을 특징으로 열거했다. 기독교의 번역가능성 (Translatibility)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이 라민 사네의 열거가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언어, 장소, 심지어 성경의 기록까지 형식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의 번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대로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번역 가능성을 수용한다는 사실은 본질의 왜곡을 수용한다는 의미보다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번역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번역 가능성은 앞서 지적한대로 상황화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보다 더 분명한 기독교의 성격을 드러내는 용어이고 이 번역 가능성은 자신학화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논의가 주는 엄청난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에 더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읽어내려는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자신학화 논의는 여기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3. 이슬람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대안

---

<sup>1</sup> <https://pctscwm.tistory.com/103?category=369230> [pctscwm]

<sup>1</sup> 2007년 6월 영국 위클리프 센터 라민사네 강의 (Unpublished)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슬람의 상황에서 증거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파키스탄의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알렉산더 말릭 (Alexander J. Malik)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sup>2</sup>

성경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유일한 경전이 코란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은 코란에서 철저히 부인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부인하던 말던 그냥 신앙 고백하듯 성경에 있는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통은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성경이 이미 왜곡되었고 그래서 폐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양을 중심으로 문서 비평 등 성경을 비평적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오히려 무슬림 학자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여 성경을 공격한다. 코란이 최종 계시이고 앞선 계시들을 폐기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방식대로 설명하는 것이 잘 전달될 리는 없다.

두번째 방법은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용어, 즉 코란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기독교인들은 코란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대해 거부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려는 기독교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변증의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깊이 있게 소통이 되기 보다는 다만 기독교가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아주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된다.

무슬림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마주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선지자 무하마드를 너무 신성화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욕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를 하디스 (선지자의 언행)에 근거하여 마치 그리스도처럼 신성화시켜 기독교론에 대항하는 '무하마드론' (Muhamadology) 교리로 발전시켜 놓았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종교, 사회, 문화 상황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증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선 성경적인 기독교론을 재발견 해야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신조들은 수 세기 동안 논쟁한 결과인데 어떤 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적 용어와 표현들 속에 숨겨져 있기에 드러내야 한다. 역사의 일부이고 역사를 1 세기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헬라 교부나 라틴 교부 혹은 동방이나 서방 기독교론 보다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론이 되어야 한다. 교부들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

<sup>2</sup> Malik, Alexander J., 1993. 'Confessing Christ in the Islamic Context.' In: R. S. Sugirtharajah, ed. *Asian Faces of Jesus*. NY: Orbis, 75-84.

그들로부터 배우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슬람의 종교, 사회, 문화적인 사고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슬람의 종교, 사회, 문화적인 사고 형태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슬람의 가장 핵심 사고는 하나님의 유일성 (Tawhid)과 위대함 (Akbar) 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코란이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기에 신성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현상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코란은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고 신성하다는 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하나는 인격체로 하나는 구두로 온 계시이다. 코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인가? 무슬림들은 영원한 것이 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것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신성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1-3).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1-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말씀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으니 신성하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무슬림들은 시르크 (Shirk)를 범한다고 말할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들'이라고 할 때 육체적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랍어에서도 '아들'을 은유로 사용한다. '사자의 아들', '시간의 아들'은 사자가 혹은 시간이 사람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삶을 사실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를 더 나은 용어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말하자면, 그의 인격안에 그는 하나님이며 신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 핵심 주제는 위대하심이다. 위대하심은 창조에서 드러나는 데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에서 창조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심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창조는 첫 창조요 옛창조를

대신한다. 샤리아 (법)를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 코란은 선지자들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데 (수라 4:155; 5:70) 그리스도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두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고 증거할 수 있다. 어떤 무슬림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죽음'이다.

#### 4. GKA 교회의 상황화

유수프 로니의 GKA 교회는 이슬람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독교의 변증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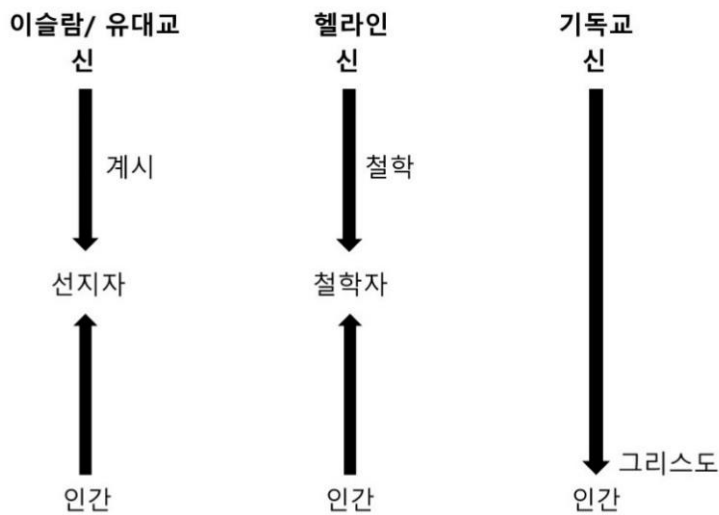


그림 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혹은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종교의 주장을 비교한다. 각 종교 혹은 철학에는 하나님이라 통칭할 수 있는 나름의 신 혹은 신성함이 있고 그 신은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 말씀, 계시, 사도 등을

사용하신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식은 자신의 계시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즉 선지자에게 주어서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다. 헬레니즘의 주장은 신이 사도 혹은 철학이라 부르는 것을 철학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그 철학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그 말씀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요 1:1, 14)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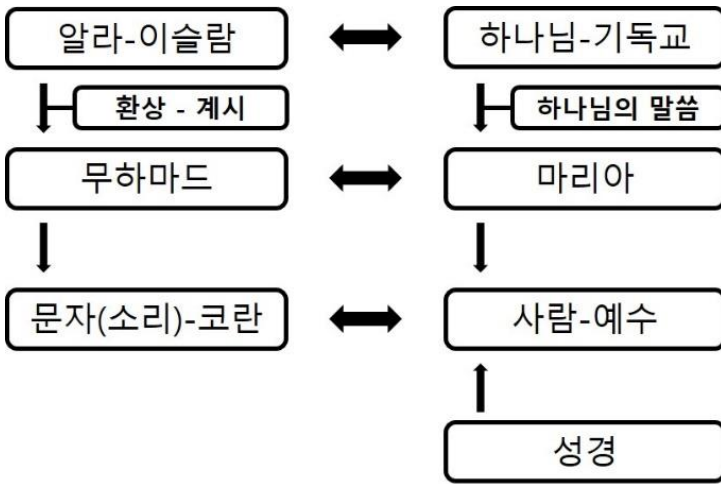


그림 2

다시 이것을 이슬람과 기독교의 두 종교로 국한하여 비교한다면 하나님 (알라)은 계시 혹은 말씀을 매개체 (무하마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전했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것이 코란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으로 임했다. 따라서 코란과 비교되는 기독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민 사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3</sup>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슬람에서는 그 말씀이 기록한 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규율과 명령이 가득하더라'. (Christianity, the Word of God is Jesus, the Word "made flesh who dwelt among us, full of grace and truth". For Islam, the word became a holy book and dwelt among us, full of commandments and directives.) 이슬람의 코란과 성경을 같은 경전이라는 차원에서 비교할 때 앞서 지적한 대로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여러가지 성경에 대한 왜곡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변증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코란에 대해 가진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학화로서의 기독교론, 즉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치중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나가면서

이슬람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기독교론을 상황화 한다는 것은 복음주의 선교에서 잘 시도되고 있는 앎은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화된 기독교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화에 대한 정당성은

<sup>3</sup> 2007년 6월 영국 위클리프 센터 라민사네 강의 (Unpublished)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이후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 보여주는 번역 가능성 (Translatability)에 기반하며 무슬림 상황에서 기독교를 상황화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하심이라는 준거들에 기반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보았다. 위의 글은 이미 밝힌대로 유수프 로니와 알렉산더 말리의 글을 중심으로 앤드류 월스와 라민 사네 등이 이미 설명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논의를 통해 좀 더 섬세하고 발전된 생각들이 정리되기를 바란다.

### <토론질문>

1. 기독교를 상황화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2. 이슬람 상황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과 자신학화하는 것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